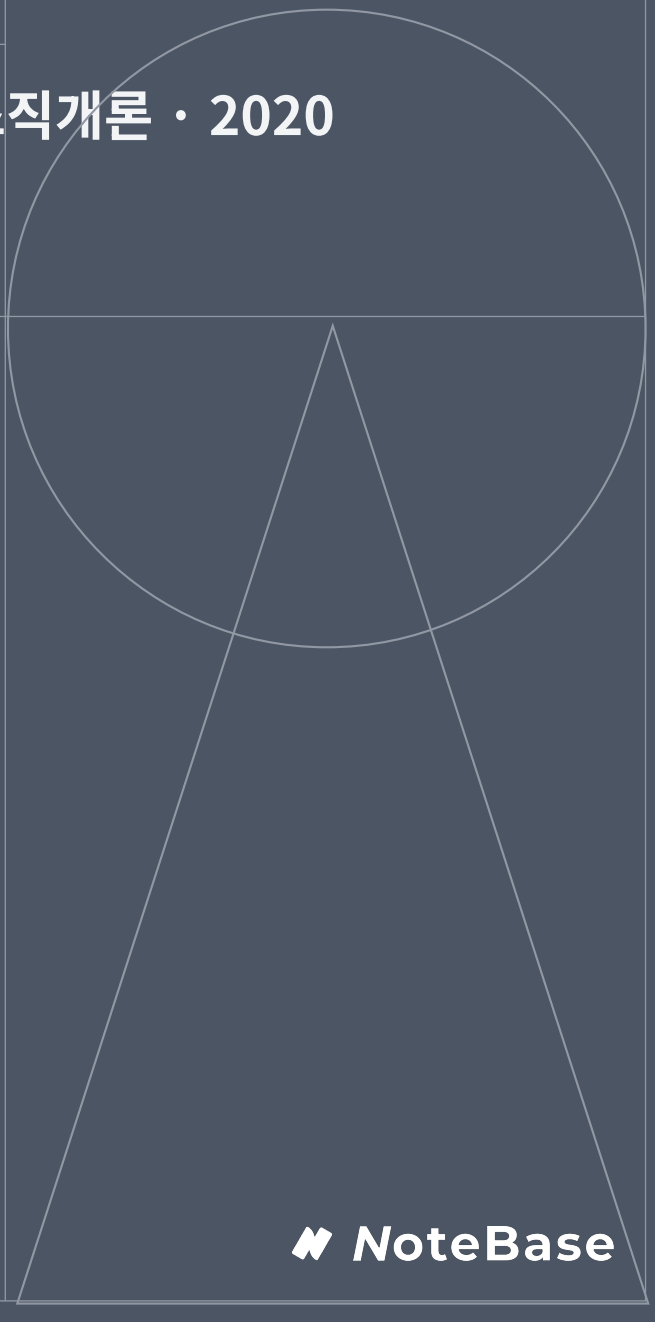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0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0

문 1. RDA에서는 자료의 물리적 측면을 매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체유형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오디오(audio)
ㄴ. 마이크로필름 카세트(microfilm cassette)
ㄷ. 컴퓨터(computer)
ㄹ.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오디오와 컴퓨터는 구체적인 저장 용기의 형태가 아니라 **자료 이용에 필요한 매개 장치의 일반적 유형**을 나타내므로 매체유형에 속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RDA의 매체유형은 자료의 내용을 보거나 재생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매개 장치의 일반적 유형을 나타낸다. 수록매체유형은 매체유형과 함께 저장매체 및 이를 담는 용기의 구체적 형식을 나타낸다.

ㄱ. 오디오(audio): 매체유형이다. 음성이나 소리로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음향 재생 장치의 유형**을 나타낸다. 오디오 디스크나 오디오 카세트처럼 저장매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수록매체유형과 구별한다.

ㄴ. 마이크로필름 카세트(microfilm cassette): **수록매체유형**이다. 마이크로필름이 카세트에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매체유형은 마이크로폼(microform)이다.

ㄷ. 컴퓨터(computer): 매체유형이다. 자료의 내용을 이용하는 데 **컴퓨터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컴퓨터 디스크나 온라인 자원처럼 구체적인 수록 형태를 나타내는 수록매체유형과 구별한다.

ㄹ. 현미경 슬라이드(microscope slide): **수록매체유형**이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자료가 슬라이드에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매체유형은 microscopic이다.

매체유형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과 ㄷ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FRBR 제1집단에 해당하는 개체로만 묶은 것은?

①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② 개인, 단체

③ 저작, 개인, 대상

④ 개념, 대상, 사건, 장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FRBR 제1집단은 **지적·예술적 창작의 산물**을 나타내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로 구성된다. 창작이나 생산에 책임을 지는 개인·단체는 제2집단에 속한다.

개념 구분

제1집단은 지적·예술적 창작의 산물을 구분한 것이다. 저작은 독립된 지적·예술적 창작물이고, 표현형은 그 저작을 문자·소리 등으로 실현한 것이다. 구현형은 표현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개별자료는 **구현형의 개별 사례**이다. 예를 들어 소설 자체는 저작, 그 소설의 한국어 번역문은 표현형, 그 번역문을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판은 구현형, 도서관이 소장한 그 판의 책 한 권은 개별자료에 해당한다.

제2집단은 **창작·생산·배포·소장 등에 책임을 지는 주체**인 개인·단체이다. 저자나 출판사처럼 제1집단 개체에 책임 관계로 연결되는 주체를 나타내므로, 창작의 산물 자체를 나타내는 제1집단과 구별된다.

제3집단은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추가 개체인 개념·대상·사건·장소이다. 제1집단과 제2집단의 개체도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주제가 된다는 이유로 소속 집단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개인·대상은 각각 제1집단·제2집단·제3집단의 개체가 섞인 묶음이다.

NoteBase

문 3. ISBD(M)을 적용하여 표목과는 무관하게 기술(description)만으로 독립된 저록을 완성할 수 있는 목록규칙은?

① 파니찌 목록규칙

② AACR2

③ KCR3

④ RDA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KCR3는 ISBD(M)을 수용하여 **기술부와 표목부를 독립**시킨 목록규칙이다. 기본표목을 먼저 정하지 않아도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저록을 완성하는 '기술단위방식'을 채택하였다.

핵심 풀이

KCR3의 기술단위방식: '기술'은 표제·책임표시·발행사항·형태사항 등 자료를 식별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표목'은 목록에서 자료를 찾는 단서가 되는 이름이나 표제 등이다. KCR3는 ISBD(M)의 기술 원칙을 받아들여 **기본표목 없이 기술부만으로 독립된 저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목은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으로 나누어 우열을 두기보다 동등한 접근점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표목과는 무관하게 기술만으로 저록을 완성한다'는 조건은 KCR3의 특징에 해당한다.

AACR2·RDA와의 구분: AACR2와 RDA도 자료의 기술을 다루지만, **기본표목 또는 채택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규정한다. 문제의 구별 기준은 서지정보를 기술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술부를 표목부에서 독립시켜 저록의 단위로 삼는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4. 다음에 해당하는 Dublin Core의 기본요소는?

◯ 해당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 개체
◯ 사람과 단체, 서비스를 포함
◯ 일반적으로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 명칭을 사용

① Coverage
② Publisher
③ Contributor
④ Identifier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Publisher(발행자)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책임을 지는 개체이다. 사람·단체·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핵심 단서는 개체의 종류가 아니라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역할**이다.

핵심 풀이

Publisher(발행자)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책임을 지는 개체**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발행자는 사람이나 단체뿐 아니라 서비스도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개체의 명칭을 값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세 설명은 모두 Publisher의 정의와 기록 방식에 해당한다.

Contributor(기여자)도 사람·단체·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명칭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이 요소는 **자원에 기여한 개체**를 나타낸다. 두 요소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책임을 맡았는지이며, 제시문은 기여 자체보다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책임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5.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표시 기호는?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245 00 ▼a에바 페론 · 이사벨 페론/▼d폴 L. 몽고메리 저;
▼e유성일 역
246 0 ▼i관제:▼a아르헨티나여 울지 마오!
260 ▼a서울 : ▼b전국사, ▼c1982
(㉠) ▼a348 p. : ▼b초상화; ▼c21 cm
490 00 ▼a영 레이디의 여성전기; ▼v2
(㉡) 18 ▼a페론, 에바 ▼v전기
700 1 ▼a몽고메리, 폴 L.
700 1 ▼a유성일

① ㉠: 270, ㉡: 600
② ㉠: 270, ㉡: 650
③ ㉠: 300, ㉡: 600
④ ㉠: 300, ㉡: 65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면수·초상화·크기를 기술한 줄은 **형태사항(300)**이다. '페론, 에바'는 자료에서 다루는 인물이므로 **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600)**을 쓴다.

빈칸별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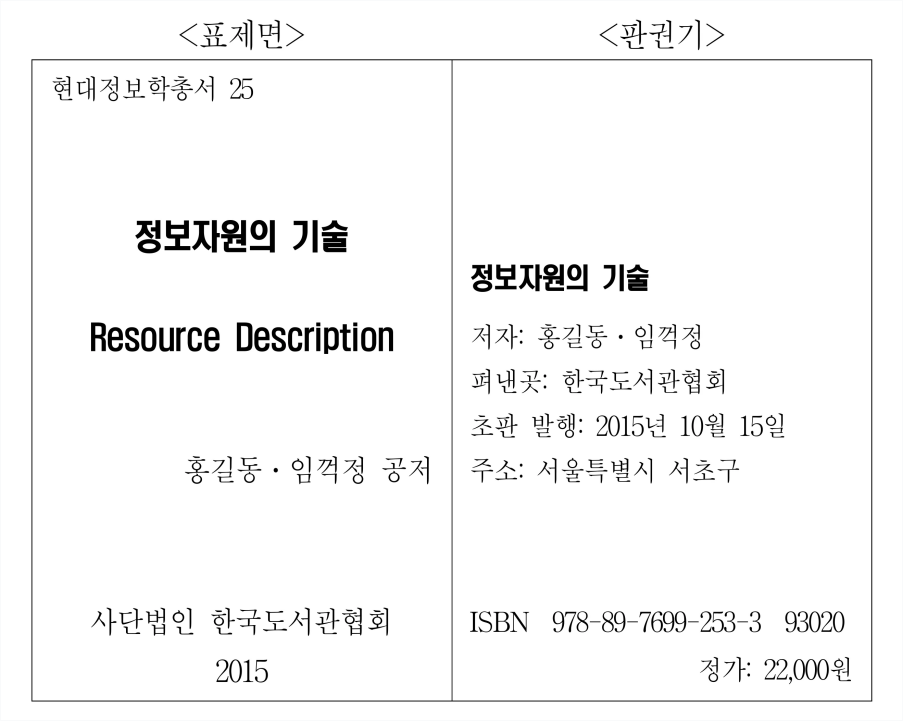
㉠ 300: 300은 자료의 수량, 물리적 특성, 크기 등을 기술하는 '형태사항' 필드이다. 제시된 ▼a348 p.는 면수, ▼b초상화는 기타 물리적 특성, ▼c21 cm는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줄의 표시기호는 **300**이다.

㉡ 600: 600은 자료의 주제가 되는 개인명을 기술하는 '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 필드이다. ▼a의 '페론, 에바'는 전기의 대상인 인물명이고, ▼v의 '전기'는 자료의 형식을 한정하는 형식세목이다. 필드는 세목인 '전기'가 아니라 **주표목인 개인명**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600을 쓴다. 650은 일반주제명을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이 개인명 표목에 적용하지 않는다.

㉠ 300, ㉡ 600의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KCR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 형식으로 자료를 기술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시기호,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표제면>

현대정보학총서 25

정보자원의 기술

Resource Description

홍길동 · 임꺽정 공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2015

<판권기>

정보자원의 기술

저자: 홍길동 · 임꺽정

펴낸곳: 한국도서관협회

초판 발행: 2015년 10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ISBN 978-89-7699-253-3 93020

정가: 22,000원

ㄱ. 020 ▼a9788976992533 ▼g93020 : ▼c₩22000

ㄴ. 245 ▼a정보자원의 기술=▼xResource description / ▼d홍길동, ▼e임꺽정 공저

ㄷ. 260 ▼a서울 : ▼b한국도서관협회, ▼c2015

ㄹ. 490 ▼a현대정보학총서 ; ▼v25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저자처럼 역할이 같아도 첫 번째 저자는 ▼d, **두 번째 저자는 ▼e**로 구분하고 두 이름 사이는 쉼표로 잇는다.
표제면의 '현대정보학총서 25'는 책의 본표제와 구별되는 **총서명과 총서번호**이므로 490 필드에 기술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020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판권기의 ISBN 978-89-7699-253-3은 **하이픈을 입력하지 않고** ▼a9788976992533으로 기술한다. 부가기호 93020은 ▼g에, 가격 22,000원은 입수조건에 해당하므로 ▼c에 기술한다. 따라서 ▼a9788976992533 ▼g93020 : ▼c₩22000은 각 정보와 식별기호가 일치한다.

ㄴ. O: 245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표제면의 '정보자원의 기술'은 본표제이므로 ▼a에, 다른 언어로 제시된 같은 표제 'Resource description'은 대등표제이므로 등호 뒤의 ▼x에 기술한다. 영문 표제는 첫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고유명사가 아닌 description은 소문자로 쓴다. 빗금 뒤에는 첫 번째 저자 홍길동을 ▼d에, 두 번째 저자 임꺽정을 ▼e에 기술한다. 두 사람은 모두 공저자이므로 **동일 역할의 책임표시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고 '공저'를 함께 기술한다.

ㄷ. O: 260은 발행·배포·간사사항을 기술하는 필드로, ▼a는 발행지, ▼b는 발행처, ▼c는 발행년을 나타낸다. 판권기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발행지는 '서울'로 기술한다. 발행처명 앞의 **법인형태를 나타내는 '사단법인'은 생략**하므로 '한국도서관협회'로 기술한다.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은 발행년인 2015로 기술하므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5'의 대응이 성립한다.

ㄹ. O: 490은 총서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표제면 위쪽의 '현대정보학총서'는 이 책이 속한 총서의 표제이므로 ▼a에 기술하고, 그 총서 안의 번호 25는 **총서번호를 나타내는 ▼v**에 기술한다. 총서명과 총서번호 사이에는 쌍반점(;)을 사용하므로 '490 ▼a현대정보학총서 ; ▼v25'로 기술한다.

ㄱ·ㄴ·ㄷ·ㄹ이 모두 자료의 정보와 기술 규칙에 맞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커터(Charles A. Cutter)는 사전체목록규칙을 통하여 목록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② AA Code는 국제목록규칙으로 영국과 미국의 협동목록규칙이다.

③ ISBD 통합판은 국제목록원칙규범을 토대로 접근점과 기술부를 규정하고 있다.

④ RDA 본문에는 구분기호 등 요소 표시에 관한 규칙이나 배열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ISBD 통합판은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서지기술**의 요소·배열순서·구분기호를 규정한다.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접근점과 기술부를 모두 다룬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커터는 '사전체목록규칙'에서 이용자가 저자·서명·주제로 자료를 찾고, 특정 저자·주제·문학형식에 해당하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확인하며, 판이나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목록을 단순한 소재 확인 수단을 넘어 **탐색·집중·선택을 돕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② O: AA Code는 미국도서관협회와 영국도서관협회가 협력하여 1908년에 간행한 영미목록규칙이다. 영국과 미국의 목록 관행을 조정하려 한 **국제적 협동목록규칙**이며, 양측이 모든 규칙에 합의하지는 못하여 영국판과 미국판으로 나뉘어 출판되었다.

③ X: ISBD 통합판은 국제목록원칙을 반영하면서 서지기술에 필요한 요소와 그 배열순서, 요소를 구별하는 구분기호를 규정한다. 그러나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규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접근점과 기술부를 규정한다'는 표현은 '서지기술을 규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자명을 책임표시로 기술하는 것과, 그 저자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의 형식을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이다.

④ O: RDA는 자원의 속성과 자원 간 관계를 어떤 데이터 요소로 기록할지에 중점을 둔다. 기록한 요소를 화면이나 목록에 어떤 순서와 구분기호로 표시할지는 본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즉, **데이터의 내용과 표시 방식을 구별**하므로, RDA로 작성한 데이터도 필요에 따라 ISBD의 순서와 구분기호를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NoteBase

문 8. MARC21(서지데이터용)의 245 필드를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음)

① 245 $aHamlet ;$aRomeo and Juliette

② 245 $aFocus on grammar :$bbasic level

③ 245 $aThe plays of Oscar Wilde /$cAlan Bird

④ 245 $aAnimalsk production =$banimal production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45 필드의 **$a는 반복할 수 없다**.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에 여러 저작이 수록되어 있으면 첫 번째 표제는 $a에, 두 번째 이후의 표제는 **$b**에 기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에 별개의 저작이 함께 수록된 경우, 첫 번째 표제는 $a에 기록하고 두 번째 이후의 표제는 $b에 기록한다. $a는 반복 불가이므로 'Romeo and Juliette' 앞의 두 번째 $a를 **$b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245 $aHamlet ;$bRomeo and Juliette'로 기록하며, 세미콜론은 두 저작의 표제를 구분한다.

② O: 'Focus on grammar'는 본표제이므로 $a에, 'basic level'은 본표제를 보충하는 **기타표제정보**이므로 $b에 기록한다. 기타표제정보 앞에는 콜론(:)을 사용한다.

③ O: 'The plays of Oscar Wilde'는 본표제이므로 $a에 기록한다. 'Alan Bird'는 **책임표시**에 해당하므로 $c에 기록하며, 책임표시 앞에는 빗금(/)을 사용한다.

④ O: 'Animalsk production'은 본표제이므로 $a에 기록한다. 'animal production'은 본표제를 다른 언어로 나타낸 **대등표제**이므로 $b에 기록하며, 대등표제 앞에는 등호(=)를 사용한다. $b에는 기타표제정보뿐 아니라 대등표제도 포함된다.

NoteBase

문 9. MODS의 <abstract> 요소와 연관되는 DC의 요소명은?

① Coverage

② Description

③ Source

④ Subject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MODS의 abstract는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초록이며, DC에서는 초록을 포함한 내용 설명을 **Description**으로 기록한다.

개념 구분

abstract와 Description: MODS의 abstract는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는 요소이다. DC의 Description은 초록·목차·자유로운 서술 등을 담는 내용 설명 요소이므로, MODS의 abstract는 **DC의 Description에 대응**한다.

Subject와의 구분: Subject는 자료가 다루는 주제를 키워드·주제어·분류기호 등으로 나타낸다. **주제를 나타내는 말**과 **내용을 요약한 초록**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주제어이고, 그 교육의 목적·방법·결과를 요약한 글은 초록이다.

NoteBase

문 10. KCR 제4판과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다음의 연속간행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옳은 것은?

본표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1970년
— 『도서관학』 창간호(제1집)
◯ 1993년 6월
—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본표제 변경(제24집)
— '반연간'으로 간행빈도 변경
◯ 1996년 3월
— '계간'으로 간행빈도 변경
— '제30권 제1호'로 권호차 변경

① 본표제가 변경되었으므로 별도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한다.

② 기술의 정보원은 『도서관학』의 첫 호(창간호)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간행빈도는 '반연간'에서 '계간'으로 변경되었으나, 동일 본표제이므로 310(간행빈도)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④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도서관학』의 후속 자료이므로 『도서관학』에 관한 정보를 785(후속저록) 필드에 기술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연속간행물이 '도서관학'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본표제를 변경하면, **변경된 본표제에 대해 별도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한다. 변경 전후 자료의 관계는 선행저록과 후속저록으로 연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KCR 제4판은 연속간행물의 본표제가 변경되면 변경된 표제에 대해 **별도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따른다. 제시된 자료는 1993년 6월 제24집부터 '도서관학'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바뀌었으므로, 두 본표제의 레코드를 각각 작성하고 서로 연결한다.

② X: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레코드는 **변경된 본표제로 발행된 첫 호**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기술의 기준은 1970년에 발행된 '도서관학' 창간호가 아니라, 1993년 6월에 발행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4집이다. 이전 표제의 창간호와 새 표제로 발행된 첫 호를 구분해야 한다.

③ X: 문제에서 지정한 KORMARC 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에서 310 필드는 현재 간행빈도를 기술하는 **반복불가 필드**이다. 현재 간행빈도인 '계간'과 그 시작 시점인 1996년 3월은 310 필드에, 이전 간행빈도인 '반연간'과 그 시행 기간은 **321(이전 간행빈도) 필드**에 기술한다. 본표제가 같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간행빈도를 310 필드의 반복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X: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레코드에서 '도서관학'은 먼저 발행된 자료이므로, 그 정보는 **780(선행저록) 필드**에 기술한다. 785(후속저록) 필드는 해당 레코드의 자료 뒤에 이어지는 자료를 기술하는 필드이다. 따라서 '도서관학'의 레코드에서 후속 자료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연결할 때 785 필드를 사용한다.

NoteBase

문 11.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ㄴ. 장일세 동서저자기호표
ㄷ. LC 저자기호법
ㄹ.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열거식은 **저자명과 대응 기호를 미리 열거한 표에서 기호를 찾는 방식**이다. LC 저자기호법은 표를 사용하더라도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 결합하므로 **분석합성식**에 해당한다.

보기별 해설

ㄱ.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 열거식: 저자명이나 그 앞부분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하고 대응하는 숫자를 미리 부여한 표이다. 해당 항목의 숫자를 찾아 저자의 첫 문자와 함께 사용하므로 **미리 부여된 기호를 찾아 쓰는 방식**이다.

ㄴ. 장일세 동서저자기호표 — 열거식: 동양서의 저자명을 대상으로 이름과 대응 숫자를 미리 열거한 표이다. 문자별 숫자를 새로 조합하는 대신 **저자명에 대응하는 기호를 표에서 찾아** 사용한다.

ㄷ. LC 저자기호법 — 분석합성식: 저자명 첫 문자를 두고, 뒤따르는 문자를 기호표의 숫자로 바꾸어 결합한다. 저자명별 완성 기호를 일일이 열거한 것이 아니라 **문자에 대응하는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이므로 열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 분석합성식: 기호화 대상인 이름의 문자에 대응하는 기호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합한다. 저자명별 완성 기호를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분석하여 기호를 합성**하므로 열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거식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①이다.

NoteBase

문 12. 콜론분류법(CC)에서 각 패싯을 나타내는 5개의 기본범주(fundamental categories)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Personality

② Form

③ Space

④ Tim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콜론분류법의 5개 기본범주는 **PMEST**, 즉 개성·물질·에너지·공간·시간이다. **Form(형식)은 이 기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콜론분류법은 주제를 여러 측면인 패싯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본범주는 이러한 패싯을 성격에 따라 묶는 가장 일반적인 범주이다.

① O: Personality(개성)는 기본범주 P에 해당한다. 주제에서 다루는 **중심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분야에 따라 사람·기관·동식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② X: Form(형식)은 **5개 기본범주의 명칭이 아니다**. 기본범주는 Personality(개성), Matter(물질), Energy(에너지), Space(공간), Time(시간)이며, 머리글자를 따서 PMEST라고 한다.

③ O: Space(공간)는 기본범주 S에 해당한다. 국가·도시·지역처럼 주제의 **지리적 범위**를 나타낸다.

④ O: Time(시간)은 기본범주 T에 해당한다. 세기·시대·계절처럼 주제의 **시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13.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개분류법(EC)은 총 다섯 가지 분류표를 만들어 장서 규모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분류법이다.

② 서지분류법(BC)은 영국의 도서관을 위한 분류법으로 동일 주제는 동일 장소에 집결시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③ 미의회분류법(LCC)은 비십진분류법으로 주류의 배열은 전개분류법 체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④ 주제분류법(SC)은 십진분류법으로 주류의 배열은 총류,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순으로 구성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의회분류법(LCC)은 주류를 열 개씩 나누는 십진식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 **비십진분류법**이다. 주류의 배열은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은 장서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 정도가 다른 **일곱 가지 분류표**를 마련한 체계이다. 제1표는 작은 도서관에, 제7표는 큰 도서관에 적합하도록 점차 상세해지므로, '다섯 가지'를 '일곱 가지'로 고쳐야 한다.

② X: 영국 도서관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한 주제는 한 장소에'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은 브라운의 **주제분류법(SC)**이다. 이는 같은 구체적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관점에 따라 흩어 놓지 않고 한곳에 모으려는 원칙이다. 블리스의 서지분류법(BC)은 학문 분야의 관계에 따라 관련 주제들을 인접시키는 체계로, 선지는 SC의 특징을 BC에 잘못 연결하였다.

③ O: 미의회분류법(LCC)은 주류와 하위 주류에 알파벳을 사용하고 이를 숫자로 세분하는 **비십진분류법**이다. 십진분류법처럼 각 계층을 일률적으로 열 개로 나누는 체계가 아니며, 주류의 배열을 구성할 때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을 참고하였다.

④ X: 브라운의 주제분류법(SC)은 **비십진분류법**이다. 주류는 총류 다음에 물리과학, 생물과학 등이 오며, 전체적으로 물질·힘 → 생명 → 정신 → 기록의 전개를 따른다. 따라서 '십진분류법'이라는 설명과 '총류, 철학, 역사, 사회과학'이라는 배열을 모두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4.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한국어 속담(Korean proverbs)』의 분류기호는?

390	Customs, etiquette, folklore
398	Folklore
.9	Proverbs
	Class here folk aphorisms
	Add to base number 398.9 notation 1−9 from Table 6, e.g., French proverbs 398.941

Table 6	
-41	French
-956	Japanese
-957	Korean

① 398.9057

② 398.90957

③ 398.957

④ 398.9957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속담의 기본기호 398.9에 제6보조표의 **한국어 기호 957을 바로 덧붙인다**. 따라서 한국어 속담의 분류기호는 398.9957이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제시된 DDC 발췌문에서 속담(Proverbs)은 398.9이며, 이 기본기호 뒤에 제6보조표(Table 6)의 언어기호를 덧붙이도록 지시한다. 여기서 덧붙인다는 것은 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숫자를 뒤에 이어 적는 것**이다. 발췌문의 프랑스어 속담 예시도 398.9 뒤에 프랑스어 기호 41을 붙여 398.941로 표시한다.

제6보조표에서 한국어(Korean)는 -957이다. 앞의 붙임표는 보조표 기호를 나타내므로 완성된 분류기호에는 쓰지 않는다. 기본기호 398.9를 그대로 두고 그 뒤에 957을 붙이면 **398.9957**이 된다. 이때 기본기호 끝의 9와 언어기호 첫 자리의 9를 모두 유지하며, 사이에 0을 넣거나 언어기호의 일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가) 『해산물 검사』와 (나) 『중국의 전염병』의 분류기호는?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5 식품위생 .58 식품검사 .581-.583 특정식품검사 594.1-.3과 같이 세분한다. 예: 낙농물검사 517.5825 .6 예방의학 일반전염병 및 접촉전염병의 예방, 위생적 관리, 위생적 검사 등을 포함한다. .62 지리적 분포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예: 일본의 전염병 517.6213 594 식품과 음료 .2 동물성 식품 .25 유제품 .29 해산물
지역구분표 -12 중국

① (가): 517.58029, (나): 517.6212

② (가): 517.58129, (나): 517.622

③ (가): 517.5829, (나): 517.6212

④ (가): 517.58229, (나): 517.622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해산물 검사는 식품검사 기호 517.58에 594.29의 **594 다음 부분인 29**를 붙여 분류한다. 중국의 전염병은 지리적 분포 기호 517.62에 **중국의 지역기호 12**를 붙인다.

NoteBase

대응 관계 해설

(가) 『해산물 검사』: 517.5829. 제시된 분류표는 특정식품검사인 517.581⌧517.583을 594.1⌧594.3과 같이 세분하도록 지시한다. 낙농물검사의 예가 517.5825인 것은 유제품 기호 594.25에서 594 다음의 25를 식품검사 기호 517.58 뒤에 붙인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해산물 기호 594.29에서 **594 다음의 29를 517.58 뒤에 붙이면** 517.5829가 된다. 0을 끼워 넣거나, 517.582 뒤에 29 전체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나) 『중국의 전염병』: 517.6212. 제시된 분류표에서 전염병의 지리적 분포는 517.62이며,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일본의 전염병을 517.6213으로 표시한 예처럼, 517.62 뒤에 해당 지역기호를 붙인다. 지역구분표의 중국 기호 -12에서 **하이픈을 제외한 12**를 붙이면 517.6212가 된다. 517.622는 중국의 지역기호 12를 온전히 반영한 기호가 아니다.

두 분류기호의 조합은 (가) 517.5829, (나) 517.6212이므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지방 간호직 시험문제집』의 분류 기호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359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035 지방공무원시험 국가공무원시험 → 350.35 .0357 시험문제집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다. 512.8 간호학
표준구분표 -07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077 각종 시험 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면허증

① 359.0357005128 512.87

② 359.035705128 512.877

③ 359.0357128 512.807

④ 359.03575128 512.8077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방공무원 시험문제집 아래에 분류할 때는 간호학 기호에서 소수점을 뺀 **5128을 그대로 덧붙인다**. 간호학 아래에 분류하는 별법에서는 시험 대비 문제집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77 전체를 붙인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지방공무원 시험문제집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시된 본표에서 359는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359.035는 지방공무원시험, 359.0357은 시험문제집이다. 359.0357 아래의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는 지시에 따라 시험 대상 주제인 간호학 512.8을 결합한다. 이때 **512.8의 소수점만 빼고 숫자열 5128을 이어 붙이므로** 분류기호는 359.03575128이다. 0을 추가로 끼워 넣거나 5128의 앞부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간호학을 기준으로 한 별법: 본표는 도서관에 따라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간호학 512.8을 기본으로 삼고, 자료가 시험 대비 문제집이라는 형식을 표준구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시된 표준구분표에서 -07은 지도법·연구법 및 교육·교육자료이고, 그보다 구체적인 **-077이 각종 시험 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면허증**이다. 이 자료에는 -077을 적용하여 512.8 뒤에 077을 붙인다. 하이픈은 구분표의 표시에 쓰인 것이므로 최종 기호에 넣지 않으며, 0을 포함한 077을 모두 유지하여 512.8077로 구성한다.

두 방법으로 구성한 기호는 359.03575128과 512.8077이며, 이 두 기호를 함께 제시한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17. UD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류는 0⊠9로 구성되어 있다.
ㄴ. 현재 UDC 주류 4는 공기호로 남아있다.
ㄷ. 사회과학과 경제학의 분류기호는 각각 3, 33이다.
ㄹ. 한 개의 주분류에 여러 개의 공통보조분류를 동시에 부가할 경우 그 순서는 '지리－시대－언어－형식' 순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여러 공통보조분류를 주분류기호 뒤에 붙일 때의 일반적인 순서는 '지리－시대－**형식－언어**'이다. ㄹ은 형식과 언어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했다.

보기별 해설

ㄱ. O: UDC는 지식 분야를 십진식으로 나누며, 주류기호로 **0부터 9까지**를 사용한다. 다만 이 기호 체계에서 4는 현재 특정 주제를 배정하지 않은 공기호이다.

ㄴ. O: UDC의 주류 4는 **공기호**로 남아 있다. 언어·언어학은 문학과 함께 주류 8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4를 언어 분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ㄷ. O: UDC에서 **3은 사회과학, 33은 경제학**이다. 33은 사회과학이라는 넓은 분야 아래에 경제학을 세분한 기호로,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주제가 구체화되는 계층관계를 보여 준다.

ㄹ. X: 제시된 네 공통보조분류를 부가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지리－시대－**형식－언어**'이다. 지리는 다루는 지역, 시대는 다루는 시기, 형식은 사전·교과서 등 자료의 형식, 언어는 자료에 사용된 언어를 나타낸다. ㄹ의 '언어－형식'을 '형식－언어'로 고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부가 순서이며, UDC에서는 자료의 특성과 배열 목적에 따라 조합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옳은 보기는 ㄱ·ㄴ·ㄷ이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③이다.

NoteBase

문 18.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809 문학사, 평론
문학의 사조(思潮)·제파(諸派) 및 평론 등을 포함한다.
각국 문학사는 해당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05 18-19세기 1700-1899
.06 20세기 1900-1999
.07 21세기 2000-
.1-.8 각 문학형식의 역사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문학형식에 의한 각국 문학사는 해당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810 한국문학
.9 문학사, 평론
820 중국문학
823 소설

① 18세기의 낭만주의문학 - 809.05
② 한국문학사 - 810.9
③ 소설사 - 809.1
④ 중국소설사 - 823.09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설사는 문학형식구분표의 **소설 기호 3**을 적용하여 **809.3**으로 분류한다. 809.1은 시의 역사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809는 문학사와 평론뿐 아니라 **문학의 사조와 제파**도 포함한다. 낭만주의는 문학 사조에 해당하고, 18세기는 제시된 1700~1899년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809.05로 분류한다.

② O: 제시문은 **각국 문학사를 해당 문학 아래에 분류**하도록 지시한다. 한국문학사는 한국문학 810 아래의 '문학사, 평론'에 해당하므로 810.9로 분류한다.

③ X: 809.1~809.8은 각 문학형식의 역사이며,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이때 1은 시, 3은 소설을 나타내므로 소설사는 **809.1이 아니라 809.3**으로 분류한다. 809.1은 시의 역사에 해당한다.

④ O: 문학형식에 의한 각국 문학사도 해당 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중국소설사는 일반적인 소설사인 809.3에 두지 않고, **중국소설 823 아래**에 문학사·평론을 나타내는 09를 붙여 823.09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19.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제주도 방언』의 분류기호는?

710 한국어 718 방언(사투리) .1-.9 각 지방의 방언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
지역구분표 -1 아시아 -11 대한민국 -119 전라도 -1199 제주특별자치도

① 710.81199

② 718.1199

③ 718.199

④ 718.99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718의 지역별 세분 지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기호 -1199에서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한 99**를 사용한다. 이를 방언의 기호 718 뒤에 붙이면 718.99가 된다.

공통 해설

『제주도 방언』은 한국어 일반을 나타내는 710보다 구체적인 '방언(사투리)'의 기호 718에서 분류한다. 718 아래의 '.1-.9'와 '지역구분표 -111-1199와 같이 세분한다'는 지시에 따라, 지역구분표의 **공통 앞부분 1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718의 소수점 아래에 붙인다. 예를 들어 지역기호가 -119인 전라도는 718.9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기호는 -1199이므로, 앞의 11을 제외하면 99가 남는다. 따라서 『제주도 방언』의 분류기호는 718.99이다. 지역기호 1199 전체나 첫 숫자 1만 제외한 199를 붙이는 방식은 제시된 세분 지시와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에 들어갈 Tables (보조표)로 옳은 것은?

331.6	Workers by ethnic and national origin
.62	Immigrants and aliens
.620 9	History, geographic treatment, biography Class here immigrant and alien workers in specific areas, e.g., immigrant workers in Canada 331.620971
.623–.629	Immigrants and aliens from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Add to base number 331.62 notation 3–9 from (㉠) for place of origin, e.g., immigrant workers from Korea 331.62519
.63	Native-born workers by ethnic group
.631–.639	Native-born workers of other ethnic groups Add to base number 331.63 notation 1–9 from (㉡), e.g., Korean Americans 331.63957

① ㉠: Table 2, ㉡: Table 5

② ㉠: Table 2, ㉡: Table 4

③ ㉠: Table 5, ㉡: Table 4

④ ㉠: Table 5, ㉡: Table 2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은 이민근로자의 **출신 지역**을 구분하므로 Table 2를 사용한다. ㉡은 현지 태생 근로자의 **민족·국가집단**을 구분하므로 Table 5를 사용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 — Table 2: 331.623–331.629의 지시는 기본기호 331.62 뒤에 출신지에 해당하는 기호를 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을 나타내는 Table 2**를 사용한다. 예시의 '한국 출신 이민근로자'는 한국의 지역기호 519를 331.62 뒤에 붙여 331.62519로 표시한다. 여기서 구분 기준은 근로자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이다.

㉡ — Table 5: 331.631–331.639는 현지 태생 근로자를 민족집단별로 세분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민족·국가집단을 나타내는 Table 5**를 사용한다. 예시의 '한국계 미국인'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한국계라는 집단을 나타내므로, 한국인 집단의 기호 957을 기본기호 331.63 뒤에 붙여 331.63957로 표시한다. Table 4는 개별 언어와 어족의 세구분표이므로 이 두 빈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Table 2, ㉡은 Table 5이므로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